

**유해환경공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일류강서를
 만들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졸업, 호텔외식관광경영학 박사 (2005.1-2013.7)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경제학석사 (2009.1-2013.5)

한양대학교 관광학 박사수료/관광학 석사/불어불문학 학사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현) 우리공화당 소상공인 위원회 공동위원장

(현)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정책위원

(현)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관광경제연구원(유), 대표 (원장)

(현) 스물쑈 주거밀집근린공원 소음공해방지 탄원민원단, 대표

(전)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박사 후 초빙연구원

(호텔외식관광경영학부)

(전) 한양대-경희대-가천대 (대학원) 외래교수

(전) 극동대학교, 경동대학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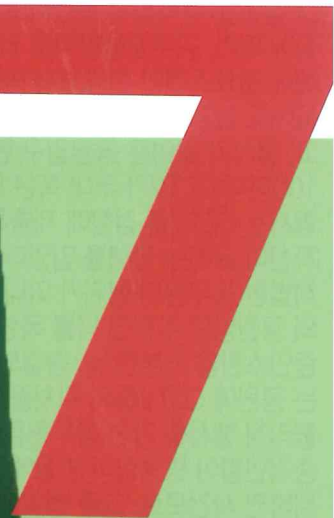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출생, 원적 : 경상남도 거제도, 83년 강서구 전입,

94년 봄~27년째 강서구(을) 방화택지개발지구 주민

우리공화당 대변인

교육, 관광문화, 경영경제 전문가

박혜영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서구를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7	우리공화당	박혜영	여	1969.08.16 (50세)	글로벌호스피탈리티 관광경제연구원(유) 대표 (원장)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졸업, 호텔외식관광경영학 박사 (2005.1-2013.7)	(현) 우리공화당 대변인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549,485	해당없음	-	고지거부	-	병역의무없음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266	-	-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2017/8/11)
모	신고거부	-	-	
후 보 자	4,266	-	-	

4. 소명서

본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약식판결은 거짓 형사조서에만 기반한 대인심리조사가 없이 진행된 서류판결이었다. 약 8개월에 걸친 1심은 가해자 공무원 3명과 난데없는 탈복자 증인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며, 2년 반에 걸친 항소심은 불성실한 변호인의 최종변론 의견서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읽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 스쿨존 주거밀집근린공원인, 방화근린공원에서 2016.8.20.일 저녁/밤 버락같은 굉음의 확성기 소음행사들이 있었고, 본인은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자신들은 힘이 없으니, 현장에 나와서 직접 관계자들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경찰이 요청하여, 방화근린공원 현장에 갔을 때 무대 위, 옆 관계자 남자들이 달려 나와 나를 와락 꺼안았다. 이들의 행동들은 마치 내가 공원 입구에서 무대 쪽으로 걸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했는데, 처음 나를 갑자기 꺼안은 남자는 불법 야외무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법정증언을 했다. 그 무대 위 남자들이 나를 갑자기 꺼안고, 다른 수십여 명의 남녀들이 무대 뒤쪽 의자에 앉히고 갑자기 짓누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무대공연을 보고 춤을 추고 있었다던(법정증언) 여자경찰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꺾꺾거리던 장면과 의자에 강제적으로 앉혀져 짓눌리는 물리적 폭력을 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법정증언)고 했고, 폭도 같은 주민들과 여자 경찰이 나의 두 팔을 꺾고 꺼안은 채로 나를 공원 입구 쪽으로 무작정 끌고 나올 때, 한 여자가 굶히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자신들이 나를 물리적 행사로 집단폭행하며 끌고 나오는 것을 인격 모독하며 동영상 찍고 있던 여자였다. 사건일(8.20토) 이후, (8.22월)(8.26목, 새벽) 대학병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형사의 거짓 형사조서(형사의 목격자6명 중, 1명은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 녹취했다)와 나를 폭행했던 여자들 중 1명이 자신의 피부가 굶히는 상해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 되었다. 그 폭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아니라, 구청 여자공무원들이었다. 1. 공무집행방해에 필요조건인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 강제연행하여 경찰차에 태워질 때 본인이 거부하음에도 강제연행 했고, 임의연행되었다고 지구대에서 지장을 찍게 하였으며, 3. 본인이 CCTV 증거동영상을 경찰에 요청했고, 형사가 보여준 공원입구 현장의 CCTV에는당시 행사현장의 수백 명과 본인, 가해자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360도 회전 100미터 CCTV가 무대 쪽은 비추지 않았다고 했는데(형사 법정증언), 통합관제센터 경찰 설명(녹취)과는 달랐다. 4. 담당 형사는 CCTV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법정증언을 하였고 5. 동영상을 촬영하고 폭행을 주도하고, 자신이 굶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자는 주민이 아니라 구청공무원이었는데, 그들의 과도한 물리적 진압과 동영상 촬영은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가 아니었으며, 6. 1심에서 적법하지 않은 폭행동영상을 촬영한 구청공무원은 자신이찍은 공무원들의 공원방문 주민인 나를 폭행한 동영상을 폐기하여 없다고 증언했다. 7. 또한, 항소심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그 여자가 법정증인소환을 거부한 날, 종결되었다. 8. 본인은 여자 경찰에 두 팔이 꺾여 포당한 채로 뒷걸음치는 상황으로 끌려 나왔고, 나는 공원에 CCTV들의 위치들을 잘 알고 있었다. 9. 본인은, 어떤 누구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오히려, 폭도주민들이 아닌 물리적 행사를 가한 공무원들에 의해 200여 군데 폭행 및 할퀴를 당했다. 그들이 나에게 대한 집단폭행행위와 형사의 CCTV 증거인멸이 명백함이 법정에서 거론되었으나, 경찰, 검찰에 의해 조사도 처벌도 없었다. 10.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으로, 그들 행위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치무관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임을 통렬하게 깨달으며, 정치 비참여자였던 저를 깊이 반성합니다.

지난날, 학업과 대학 교육, 연구직 직업인으로서 몰두하느라 외면할 수 밖에 없었던 무관심의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무관심이었던 국민의 피해임을 통렬하게 깨달으며, 수 십년간 정치 무관심이었던 저를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2015년까지 정치에는 별로 관심없이 저의 전공영역, 직업분야에 근무해온 대학 교육, 연구직 직업인이었습니다. 2015년 저희 집, 강서구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오래된 깊은 관계들이 있어 그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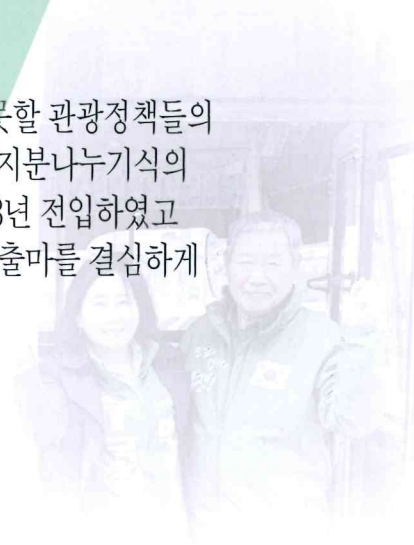
법치주의를 숭상해온 보수 우파적 자유민주시민인 저는 2016년 8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스쿨존 주거밀집 근린공원인 방화근린공원의 소음공해, 확장기소음행사들, 특히 스쿨존에 설치될 수도 없는 주거 밀집근린공원내 야외무대를 이전을 요청하는 저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탄원 원고들과 함께 강서구청을 상대로 집단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시민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해 이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 4+1 민주당 부역 정치 협의체의 준연동형 선거법, 공수처 설치 등 정치개혁의 실상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동안 대학 연구직 직업인으로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 국가를 바로 잡아야할 국민의 소명을 강하게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서구 지역사회 문제는 단순히 강서구의 환경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현역, 전 의원들의 허황된 공약과 정책 실정들의 피해로 인한 유해환경위협과 공포로 주민들의 갈등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서구 문제들,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 교육, 경제, 실현하지 못할 관광정책들의 현안 문제들로 갈등이 폭발한 지역사회에 낙하산 공천 및 특정 계파간의 지분나누기식의 오만한 공천으로 지역사회가 더 피해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강서구 1983년 전입하였고 1994년 봄부터 강서을 개척자 주민인 저 박혜영이 우리공화당의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우리공화당 강서구(을)선거구, 후보 박혜영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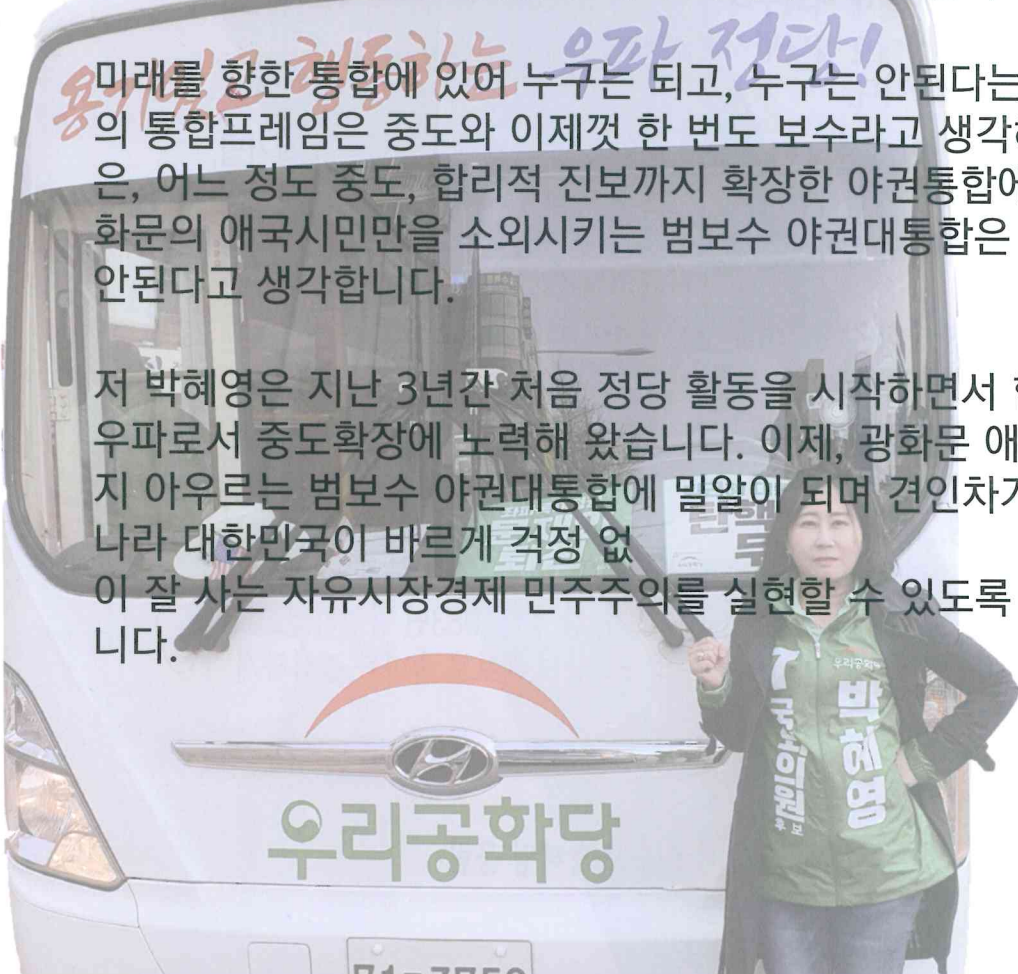
국민의 생명의 안위, 국가의 위기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강서를 후보입니다.

호텔외식관광경영학 박사학위자이자, 만 8년간의 대학외래교수, 겸임교수, 경제학 전문가인 제가 이 서울 강서을의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고 있는 지역 환경문제들, 나아가 중국인입국을 초기에 제한 하자는 저의 주장들과는 달리 잘못된 국제관광정책으로 증폭된 현 국민의 생명의 안위, 국가의 위기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강서를 후보입니다.

또한,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현재의 보수 통합에 있어, 애국시민들의 열정만이 유독 태극기부대라 칭하여 지며 극우로 통칭 되어 외면되고 소외받아 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민주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법적투쟁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것인가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래를 향한 통합에 있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보수우파의 통합프레임은 중도와 이제껏 한 번도 보수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어느 정도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확장한 야권통합에 있어서 광화문의 애국시민만을 소외시키는 범보수 야권대통합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혜영은 지난 3년간 처음 정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합리적 보수우파로서 중도확장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광화문 애국시민들까지 아우르는 범보수 야권대통합에 밀알이 되며 견인차가 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르게 걱정 없이 잘 사는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결사 반대
- 스쿨존 주거밀집 근린공원 및 소음공해방지 조성

방화3동에 위치한 방화근린공원내 야외무대는 도시공원법, 근린공원 시행규칙에 부합되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분명한 것은 스쿨존내 주거밀집 근린공원내에 소음방지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야외무대의 건립당시 허가에 동의했다는 주민들은 방화동 스쿨존주거밀집근린공원 소음공해방지 탄원민원단에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민탄원단의 법정탄원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는 과거와 같은 극단적 지역이기에 기반한 광음의 화성기소음행사들이 현저히 제한되었으며 더불어 함께 배려하며 사는 시민의식의 고취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마곡개발, 마곡중앙공원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 공항동 군부대 이전, 생활체육공원 조성
-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로 오페수 냄새 원인 차단
- 강서구 방화건설폐기장 이전 결사

교통이 편한 강서

사회기반 인프라스트럭처 시설계획은 진행은 전임 프로젝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완성 하겠습니다.

-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 교통센터) 조성
- 서부광역철도 (원종-가양-홍대) 조기 착공
- 신림연장선으로 방화역 방면 5호선 연계 조기 추진
- 방화역-김포 연장선으로 경기도 김포지역의 주민편의와
- 강서구 유입량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이익을 확대
- 방화동 5호선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으로 도시계획 뉴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살기좋은 강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개발
-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도입
- 국공립 영유아원 및 어린이 시설 확충
- 방신시장 및 강서구내 전통시장 주차장 편리화 등,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확대

환경 교통, 살기좋은
강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공항동 고도제한 완화

60년 숙원사업인

- 공항동 고도제한 완화가 선심성 허위공약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타협방안 모색

관광법규 개선

-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을 국민 휴식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텔외식관광산업 관광법규 현실화 개선
- 외식업계 및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각종 세제, 법규 강화

노상 음주행위 금지법 제정

- 음주 문화 시민의식 개선
 - 지붕없고 벽이 없는 오픈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미국에서는 노상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주류판매가 허가된 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주류취식 또한 주류영업소와 가정 등으로 공공연히 오픈된 장소에서는 음주를 금지함으로써 각종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 공공시설 및 주류판매 및 주류 영업장이 아닌 오픈된 개방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제한이 음주로 인한 불특정 주취사고 예방과 외식관광산업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세대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실생활 민생법안

어쩌다 싱글법

· 1인 싱글, 독거세대의 증가로 인간의 생애주기에 우리는 전부 어쩌다 보면 싱글, 나홀로 세대가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

독거노인, 청년, 여성, 미혼모, 저출산 대책, 존엄사법에 관련된 제반사항 고찰과 법안, 세부규칙, 시행령 신설 법안 및 보완 강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법안

35세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대학 캠퍼스내 성추행 방지와 근절을
여학생/여성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우리공화당 기본 정책사항 기반한 박혜영의 정의로운 공정법치, 살맛나는 우리나라

무능한 정권 심판

1. 공수처 폐지! 검찰기능 정상화!

- 공수처는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며, 위헌의 논란이 있음
- 공수처는 집권여당의 범죄는 철저히 은폐할 수 있는 구조적 함정을 지니고 있다는 법조계의 판단으로 야권 정당들이 공수처법 폐기를 주장

2.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진정한 5.18 유공자 및 유족 명예 회복으로 국민화합 도모

3.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

- 1인 싱글세대, 독거장년, 실버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시장경제에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하고 운영해야 함.
- 실버아파트들을 가족, 자녀 주거지와 근접한 도심지에 건립함으로써 노년층의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

4. 중국 우한, 코로나19 폐렴 바이러스 국내확산에 대한 초기 부실대응으로 인한 국민생명 위협 상황과 극심한 경제위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집권정부의 폭정, 지자체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소신!**
번영과 자유 미래를 향한 **비전!**

유해환경공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일류강서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주거환경 개선
- 교통이 편한 강서
- 살기좋은 강서
- 자유시장경제에 근거한 소상공인 보호법,
- 영세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 21세기형 신관광산업법규의 정비
- 사회적 약자, 세대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실생활 민생법안
-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법안
- 무능한 정권 심판

교육, 관광문화, 경영경제 전문가
강서를 주민 27년차, 박혜영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공화당

페이스북, www.facebook.com/hy.park816
블로그, blog.naver.com/35younga
트위터, [twitter/Drhypark](https://twitter.com/Drhypark)
전화, 02-2658-3990,
팩스, 02-2659-399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경영빌딩 4층